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항소



월성 1호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월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시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며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에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수명연장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 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고 “허가사항을 원안위 과장이 전격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위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 사유의 객관성을 봤을 때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계속 운영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고 2월 14일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판결을 내린 직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법원에 월성

1호기 정지 가치분 신청을 냈으며, 한수원은 가치분 신청은 원전 정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자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째인 2012년 설계수명이 종료되었으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계속운전 신청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15년 2월 27일 2022년까지 수명연장(계속운전)하기로 결정, 2015년 6월 23일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안돼”... 울주 주민, 국회 탄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 1천300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서생면민이 국내 최초로 자율 유치한 원전”이라며 “2016년 6월 건설을 시작해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서 주변 상가가 활성화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고용 감소나 원전 지역지원금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가 다시 침체하고, 관련 중소기업 도산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건설 중단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4호기는 올해 말 준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허가를 받아 시운전과 성능 테스트를 거쳐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기반 공사중인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 각각 준공한다.

신한울원전 2호기 본격 시운전 ... 초기전원 가압



신한울원전 2호기가 초기전원 가압 후 본격 시운전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2호기 초기전원을 가압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2월 1일 밝혔다. 초기전원 가압은 원전 설비를 시험하려고 전력을 처음 공급하는 절차로 원전 가동에 필수 공정이다. 신한울 1호기는 2015년 3월 초기전원을 가압했다.

신한울 2호기는 1호기와 함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것과 동일한 140만kW급 신형 가압경수로 (APR1400) 원전이다.

이희선 한울원자력본부장은 “모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최고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는 현재 공정률이 94%로 단계별 시험과 시운전을 거쳐 1호기는 내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